역학 · 관리보고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코로나19 특별보고서 주요 결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 **소승휘, 최선혜, 송금주, 고윤실, 원지수, 박지현, 조우미, 이선규***

*교신저자 : byuly74@korea.kr, 043-719-7430

초 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코로나19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를 요약 정리하여 주요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역주민의 개인방역수칙은 대부분 잘 지켰으며, 특히 기침예절, 일상공간 환기, 마스크 착용의 경우 95%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타인 간 2m 거리두기, 외출·모임·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한 일상생활 변화는 친구, 이웃과 만남 횟수(89.6%), 대중교통 이용(63.6%), 신체활동 실천(52.6%), 음주(45.3%)는 크게 줄고, 배달음식 이용(43.6%),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섭취(23.8%)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염려는 68.6%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염려하였고, 가족 중 건강취약자에 대한 염려는 84.7%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 감염병 대유행 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검색어 : 지역사회건강조사, 코로나19, 건강행태

* 제시된 추정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조율)이며, 전국 평균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2021년 9월 말 기준 전 세계 약 2억 3천 3백여 명이 확진된 것으로 보고되었고[1],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현재 4차 유행(2021년 7월 7일부터 현재까지)을 겪으며 약 31만 1천여 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다[2]. 이에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Korea Community Health Survey)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이 지역주민의 삶과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건강행태 및 건강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문항에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원고를 통해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수준의 변화와 관련요인을 분석한 특별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1) Our World in Data COVID-19 data set (ourworldindata.org/coronavirus)
2)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ncov.mohw.go.kr)

몸 말

1. 코로나19 증상 경험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 경험률은 0.6%이며, 최근 3개월(5월 중순~8월 중순) 동안 발열·호흡기 증상 경험률은 1.4%이었다(그림 1). 발열·호흡기 증상발현 시 집에서 휴식이 가능한 경우는 93.4%이고, 직업 유무 및 직업의 종류별(기타 98.5%, 기능 단순 노무직 89.5%)로 차이가 있었으며, 휴식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직장을 쉴 수 없어서'가 86.3%로 대부분 경제 활동 지속이 휴식 불가능의 주요 사유로 나타났다(그림 1, 표 1). 코로나19로 격리 및 입원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대상은 1~2명이 44.4%로 가장 많았고, 16.0%는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 특히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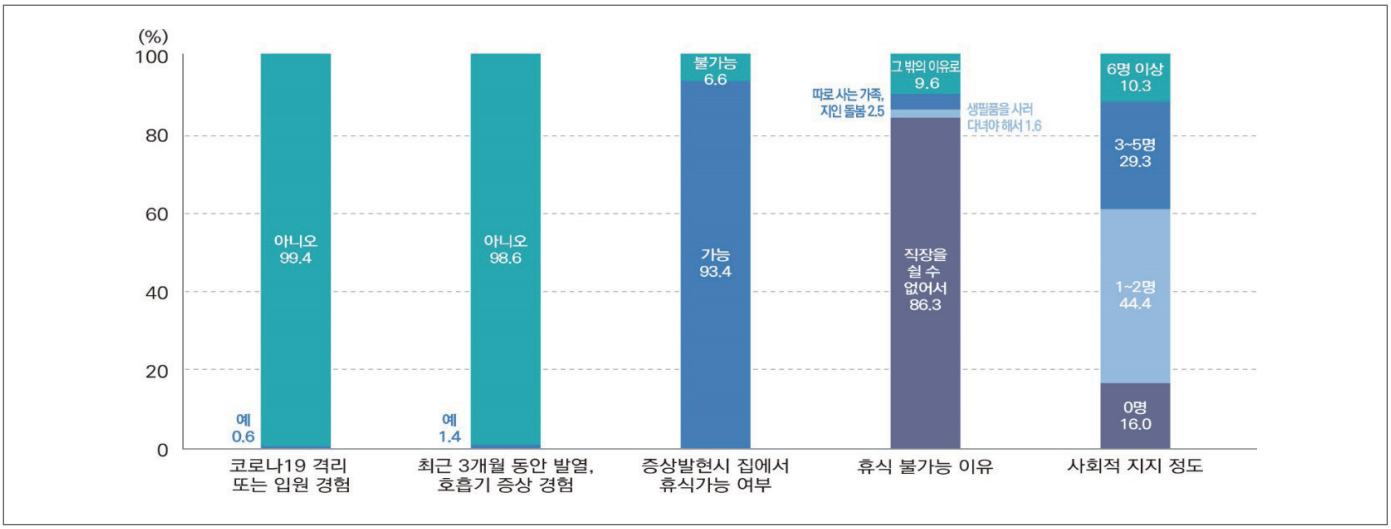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증상 경험

표 1. 발열 · 호흡기 증상발현 시 집에서 휴식이 가능한 경우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기초생활수급	권역
최댓값	여성	70세 이상	기타	월 100만원 미만	무학	현재 수급자	경북권
▲	94.3	98.7	98.5	97.7	98.7	96.7	94.7
▼	남성	30~39세	기능 단순 노무직	월 300~400만원 미만	대학교 이상	과거 수급자	경남권
최솟값	92.5	90.4	89.5	92.4	92.1	91.2	91.1

• 전체 대상자의 93.4%가 발열 · 호흡기 증상발현 시 집에서 휴식이 가능하다고 응답함.

표 2. 격리 또는 입원 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대상이 3명 이상인 경우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기초생활수급	권역
최댓값	남성	19~29세	전문행정관리직	월 400만원 이상	대학교 이상	미 수급자	강원권
▲	43.4	48.9	46.0	43.9	42.9	40.1	43.6
▼	여성	70세 이상	기타	월 100만원 미만	무학	현재 수급자	경북권
최솟값	35.7	27.1	33.6	29.6	23.3	23.6	38.3

• 전체 대상자의 39.6%가 격리 또는 입원 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대상이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함.

2. 개인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지역주민의 개인방역 수칙 실천은 대부분 잘 지켰으며, 특히 기침 예절, 일상 공간 환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천율이 낮은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표 4). 최근 1주일 동안 발열·호흡기 증상발현 시 3~4일 휴식 실천율은 남성, 40대, 기능 단순 노무직, 대학교 이상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계층 및 직업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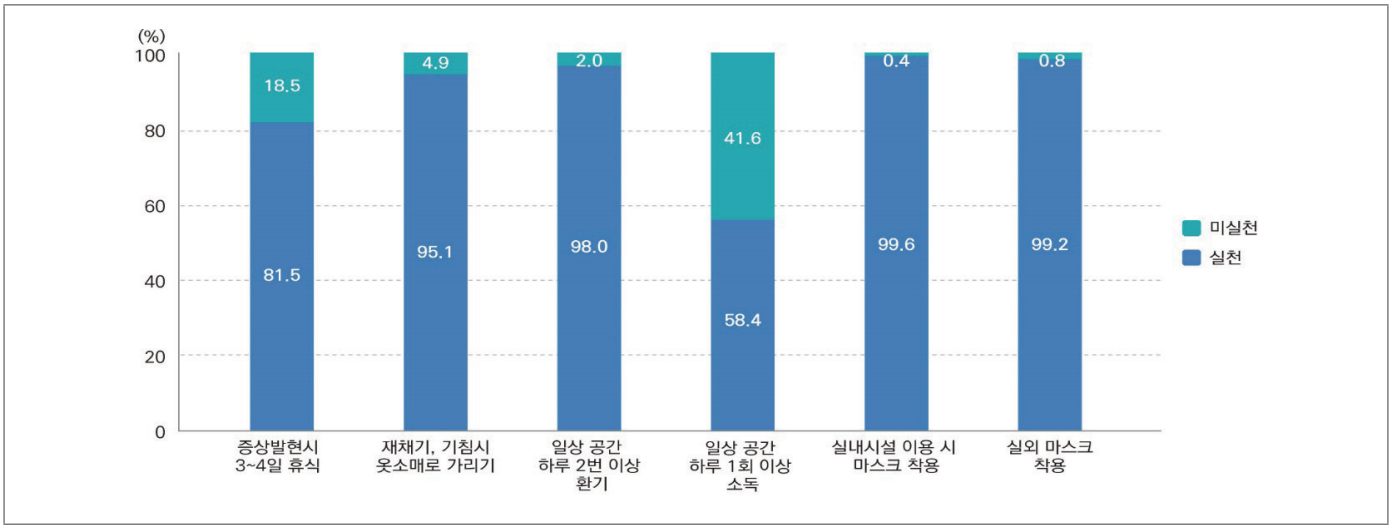


그림 2. 개인방역 수칙 실천

표 3. 최근 1주일 동안 발열 · 호흡기 증상발현 시 3~4일 휴식 실천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기초생활수급	권역
최댓값 ▲	여성 86.0	70세 이상 93.6	기타 94.3	월 100만원 미만 93.2	무학 93.5	현재 수급자 93.9	강원권 88.8
▼ 최솟값	남성 76.3	40~49세 72.4	기능 단순 노무직 66.4	월 200~300만원 미만 73.0	대학교 이상 76.5	과거 수급자 37.6	제주권 57.6

• 최근 1주일 동안 발열 · 호흡기 증상발현 대상자의 81.5%가 3~4일 휴식을 실천했다고 응답함.

표 4. 최근 1주일 동안 재채기,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실천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기초생활수급	권역
최댓값 ▲	여성 95.8	19~29세 96.8	전문행정관리직, 사무직 97.4	월 400만원 이상 96.4	대학교 이상 96.9	미 수급자 95.2	수도권 96.8
▼ 최솟값	남성 94.4	70세 이상 89.7	농림어업 87.8	월 100만원 미만 90.2	무학 85.4	현재 수급자 91.4	제주권 89.8

• 전체 대상자의 95.1%가 최근 1주일 동안 재채기, 기침 시 옷 소매로 가리기를 실천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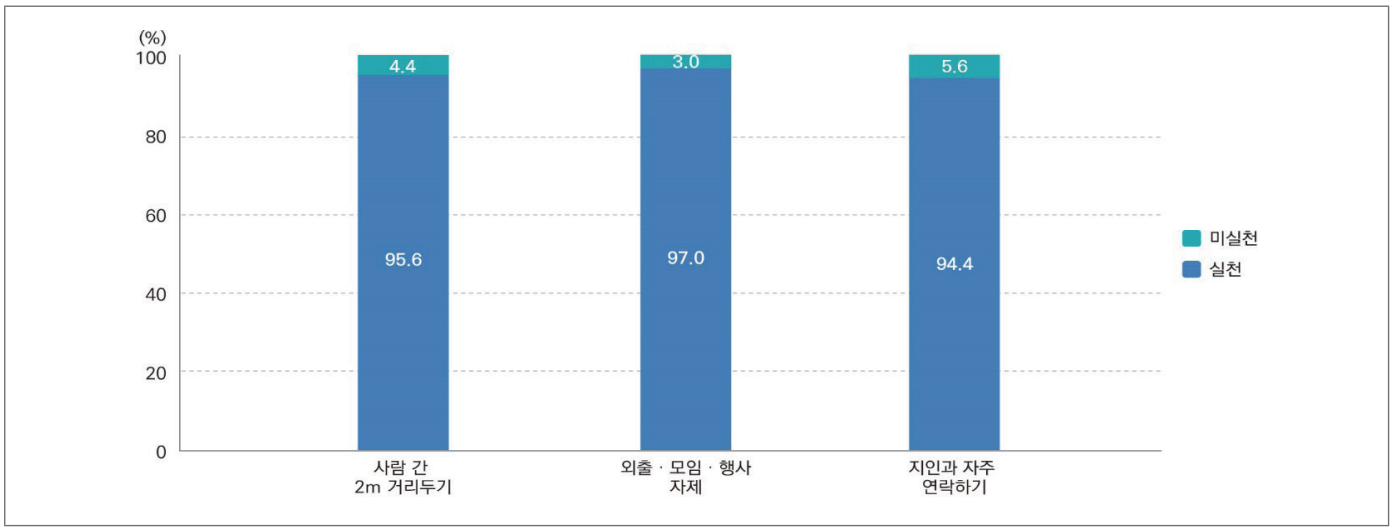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3.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한 현재의 일상생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하여, 신체활동 실천, 친구, 이웃과 만남 횟수 감소 등에서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이웃과 만남 횟수 89.6%, 대중교통 이용 63.6%, 신체활동 실천 52.6%(특히 30대와 사무직), 음주 45.3%, 흡연 19.7%(특히 70대) 순으로 크게 줄고, 배달음식 이용 43.6%(특히 30대와 사무직,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섭취 23.8%(특히 30대와 사무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면시간 12.0%(특히 20대) 순으로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그림 4, 표 5~10). 이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 제한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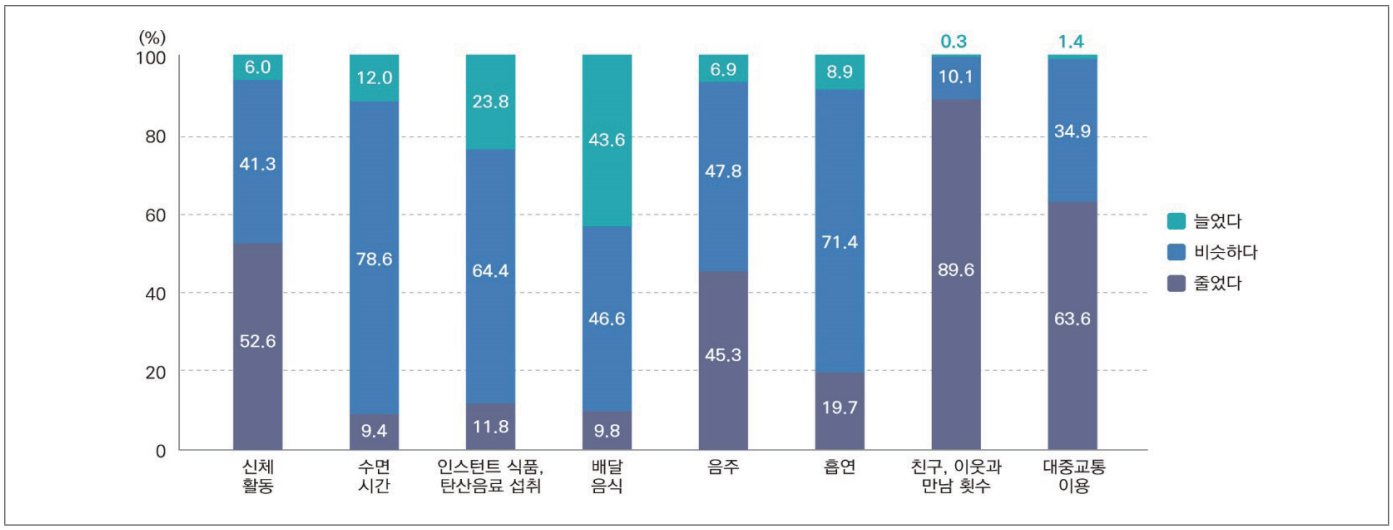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한 현재의 일상생활 변화

표 5.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한 현재의 일상생활 변화 – 신체활동 실천 감소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우울증상 유무	권역
최댓값 ▲	여성 56.4	30~39세 63.8	사무직 58.0	월 400만원 이상 55.4	대학교 이상 58.1	있음 64.6	수도권 55.7
▼ 최솟값	남성 48.8	70세 이상 41.3	농림어업 27.3	월 100만원 미만 46.0	무학 39.6	없음 52.3	제주권 40.6

• 전체 대상자의 52.6%가 신체활동 실천이 '줄었다'라고 응답함.

표 6.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한 현재의 일상생활 변화 – 수면시간 증가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우울증상 유무	권역
최댓값 ▲	여성 12.2	19~29세 20.4	기타 13.7	월 300~400만원 미만 12.6	고등학교 졸업 14.3	있음 15.6	수도권 13.0
▼ 최솟값	남성 11.7	70세 이상 7.6	농림어업 7.1	월 100만원 미만 10.9	무학 6.5	없음 11.9	제주권 9.4

• 전체 대상자의 12.0%가 수면시간이 '늘었다'라고 응답함.

표 7.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한 현재의 일상생활 변화 –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섭취 증가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우울증상 유무	권역
최댓값 ▲	여성 26.4	30~39세 33.1	사무직 27.8	월 400만원 이상 25.9	대학교 이상 28.4	있음 37.0	수도권 26.1
▼ 최솟값	남성 21.5	70세 이상 4.1	농림어업 7.6	월 100만원 미만 14.7	무학 3.0	없음 23.5	제주권 17.8

• 전체 대상자의 23.8%가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섭취가 '늘었다'라고 응답함.

표 8.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한 현재의 일상생활 변화 – 배달음식 이용 증가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우울증상 유무	권역
최댓값 ▲	여성 45.5	30~39세 56.8	사무직 52.7	월 400만원 이상 48.0	대학교 이상 51.4	있음 52.6	수도권 47.2
▼ 최솟값	남성 41.7	70세 이상 9.9	농림어업 15.5	월 100만원 미만 26.7	무학 7.4	없음 43.3	제주권 29.5

• 전체 대상자의 43.6%가 배달음식 이용이 '늘었다'라고 응답함.

표 9.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한 현재의 일상생활 변화 – 음주 감소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우울증상 유무	권역
최댓값 ▲	남성 46.7	19~29세 55.1	사무직 51.5	월 400만원 이상 46.7	대학교 이상 46.7	없음 45.4	호남권 47.9
▼ 최솟값	여성 43.2	40~49세 41.9	농림어업 35.9	월 200~300만원 미만 43.5	무학 39.7	있음 41.8	경북권 40.0

• 전체 대상자의 45.3%가 음주가 '줄었다'라고 응답함.

표 10.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한 현재의 일상생활 변화 – 흡연 감소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우울증상 유무	권역
최댓값 ▲	여성 22.8	70세 이상 34.6	기타 26.4	월 100만원 미만 25.3	초등학교 졸업 26.2	없음 19.8	호남권 25.2
▼ 최솟값	남성 19.3	19~29세 14.4	기능 단순 노무직 16.4	월 200~300만원 미만 17.6	고등학교 졸업 18.0	있음 17.4	경북권 12.5

• 전체 대상자의 19.7%가 흡연이 '줄었다'라고 응답함.

4.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염려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염려가 된다는 응답은 가족 중 건강취약자의 감염에 대한 염려 84.7%, 경제적 피해에 대한 염려 75.9%, 감염 시 주변으로부터의 비난·피해에 대한 염려 72.6%, 감염에 대한 염려 68.6%, 감염으로 인한 사망 염려 38.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특히 방역수칙 실천자가 비실천자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하였고,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염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심리적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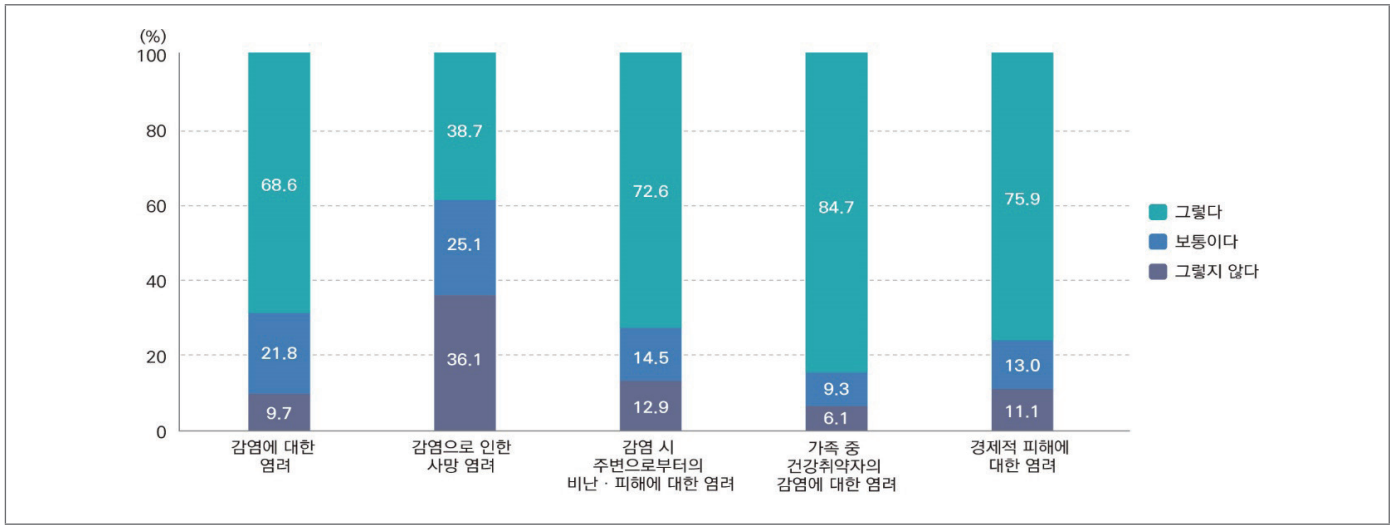


그림 5.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염려

표 11.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염려 – 감염 시 주변으로부터의 비난 · 피해에 대한 염려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야외 마스크 착용	권역
최댓값 ▲	여성 76.7	70세 이상 78.7	농림어업 79.1	월 100~200만원 미만 74.2	초등학교 졸업 80.5	실천 72.8	호남권 78.0
▼ 최솟값	남성 68.4	19~29세 64.7	기능 단순 노무직 71.4	월 300~400만원 미만 72.1	고등학교 졸업 70.2	비실천 64.4	제주권 67.3

• 전체 대상자의 72.6%가 감염 시 주변으로부터의 비난 · 피해에 대한 염려 여부에 '그렇다'라고 응답함.

표 12.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염려 – 가족 중 건강취약자의 감염에 대한 염려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야외 마스크 착용	권역
최댓값 ▲	여성 86.9	70세 이상 88.2	농림어업 88.0	월 100~200만원 미만 86.2	초등학교 졸업 89.1	실천 84.8	충청권 86.7
▼ 최솟값	남성 82.4	19~29세 77.9	전문행정관리직 83.6	월 400만원 이상 83.9	고등학교 졸업 83.3	비실천 77.1	제주권 77.8

• 전체 대상자의 84.7%가 가족 중 건강취약자의 감염에 대한 염려 여부에 '그렇다'라고 응답함.

표 13.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염려 – 경제적 피해에 대한 염려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야외 마스크 착용	권역
최댓값 ▲	여성 77.8	60~69세 81.1	농림어업 82.9	월 100~200만원 미만 81.8	초등학교 졸업 84.5	실천 76.1	충청권, 호남권 77.7
▼ 최솟값	남성 74.1	19~29세 69.4	사무직 67.1	월 400만원 이상 71.8	대학교 이상 70.1	비실천 67.6	제주권 69.0

• 전체 대상자의 75.9%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염려 여부에 '그렇다'라고 응답함.

5. 기관 또는 이웃의 코로나19 대응 신뢰도

기관 또는 이웃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대응 신뢰도는 이웃과 직장동료 71.3%, 정부 및 지역 의료기관 71.2%, 우리 시·군·구 67.9%, 우리 시·도 67.3%, 대중매체 60.9% 순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호남권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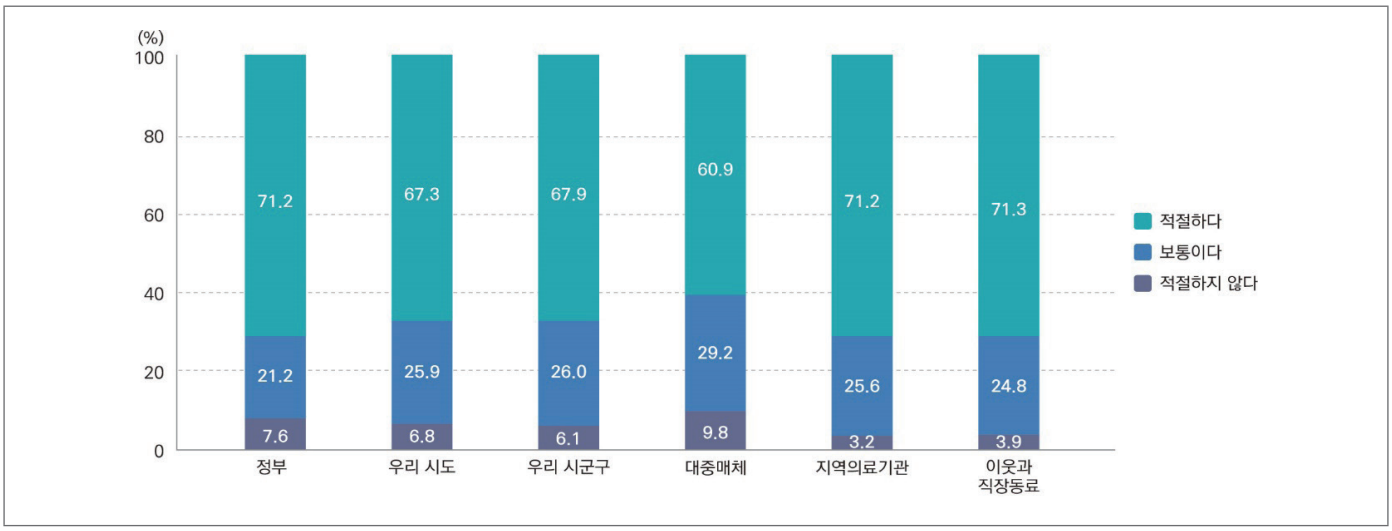


그림 6. 기관 또는 이웃의 코로나19 대응 신뢰도

표 14. 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포함) 코로나19 대응 신뢰도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우울증상 유무	권역
최댓값 ▲	여성 71.9	70세 이상 75.6	농림어업 75.1	월 100만원 미만 73.0	무학 76.8	없음 71.4	호남권 83.1
▼ 최솟값	남성 70.4	19~29세 64.8	판매서비스직 68.9	월 200~300만원 미만 68.8	고등학교 졸업 68.5	있음 64.5	경북권 61.2

• 전체 대상자의 71.2%가 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포함)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함.

표 15. 우리 시도(시청, 도청) 코로나19 대응 신뢰도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우울증상 유무	권역
최댓값 ▲	남성 67.4	70세 이상 75.4	농림어업 77.2	월 100만원 미만 72.0	무학 77.0	없음 67.6	호남권 79.7
▼ 최솟값	여성 67.3	19~29세 61.0	판매서비스직 64.8	월 300~400만원 미만 65.4	고등학교 졸업 65.3	있음 59.8	경북권 61.2

• 전체 대상자의 67.3%가 우리 시도(시청, 도청)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함.

표 16. 우리 시군구(보건기관 포함) 코로나19 대응 신뢰도

(단위 : %)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소득	교육	우울증상 유무	권역
최댓값 ▲	남성 68.0	70세 이상 77.0	농림어업 79.7	월 100만원 미만 74.0	무학 78.7	없음 68.2	호남권 79.6
▼ 최솟값	여성 67.8	30~39세 62.3	판매서비스직 65.3	월 300~400만원 미만 65.8	고등학교 졸업 66.0	있음 59.2	경북권 63.3

• 전체 대상자의 67.9%가 우리 시군구(보건기관 포함)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함.

맺는 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인식 및 예방수칙 실천 수준과 지역사회 건강 수준 변화 및 관련된 특성들을 파악한 결과,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개인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이 전반적으로 잘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상생활 변화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신체활동 실천 감소와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인 영향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개인의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염려에 대한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건강과 관련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코로나19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2013~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 개인위생 지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으나, 신체활동 관련 지표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지역사회 수준의 데이터나 역학연구 결과는 거의 없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장기화가 우리나라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본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건강행태 등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활동 실천이 감소하고, 인스턴트 식품·탄산음료 섭취나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 신체활동과 식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반면,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실천이 강조되면서 개인위생 지표는 지난 7년간의 결과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던 음주율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폭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시사점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대하여 더욱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염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 보건의료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외에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위험에 노출이 없는 선에서 신체활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Healthy At Home' 캠페인 등을 권장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청. 2020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2021.
2. 질병관리청.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코로나19 특별보고서. 2021.

Abstract

Major Findings of the COVID-19 special report: 2020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So Seung Hui, Choi Sunhye, Song Geumju, Ko Yunsil, Won Ji Su, Park Ji Hyun, Cho Woo Mi, Lee Seon Kui
Division of Chronic Disease Control,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published 「the COVID-19 special report: the 2020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CHS)」. The aim was to identify the health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mmunity's lifestyle in the era of the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pandemic. This paper presented the major findings from the special report.

Key findings indicated that over 95% of the Korea CHS participants followed the COVID-19 prevention guidelines including coughing etiquette, room ventilation at least twice a day, wearing a mask indoors and outdoors, staying two meters away from others, and social distancing. Responses highlight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impacted the respondents' lifestyles.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a decreased frequency of meeting friends or neighbors (63.6%),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52.6%), and alcohol consumption (45.3%), while respondents reported an increased consumption of food delivery (43.6%) and instant food/sweetened beverages (23.8%). Most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orried about COVID-19 infection (68.6%) and about family members with poor health status (84.7%).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findings of the report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health policies to promote the health of community dwellers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pandemic.

Keywords: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COVID-19, Health behavior

* The estimated frequency is based on a crude rate and the national av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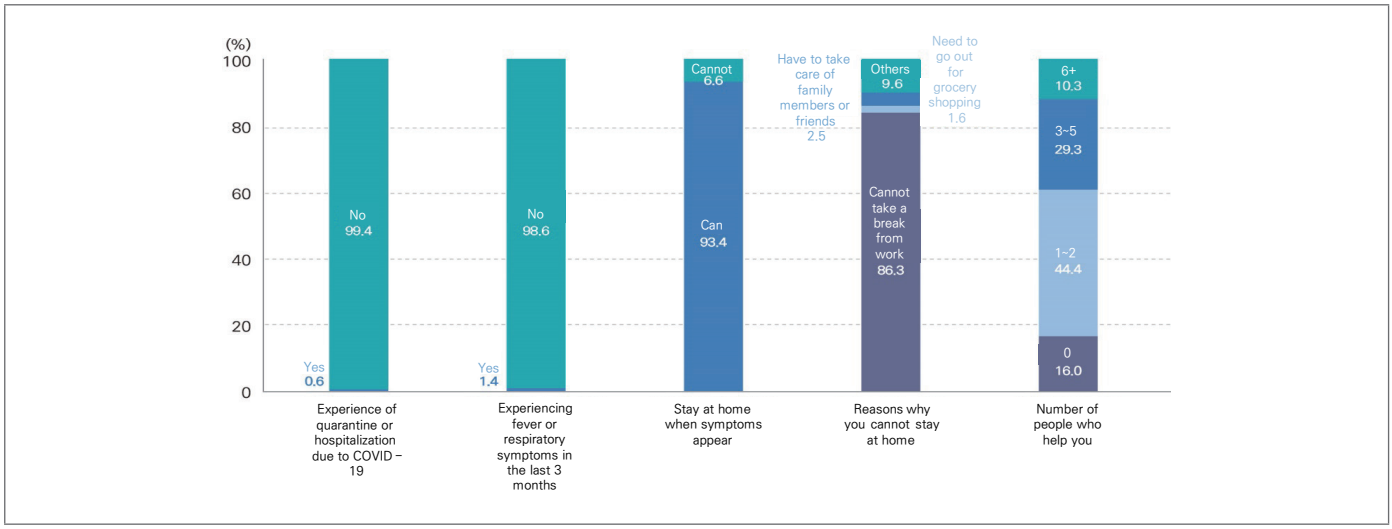


Figure 1. Experience of COVID-19 symptoms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can stay at home when symptoms appear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	Region
Maximum value ▲	Women 94.3	70 years old and over 98.7	Other 98.5	Less than ₩ 1,000,000 97.7	No formal education 98.7	Present 96.7	Gyeongsangbuk-doarea 94.7
▼ Minimum value	Men 92.5	30~39 years old 90.4	Technical, simple, labor job 89.5	₩ 3,000,000 – ₩ 4,000,000 92.4	College graduation and higher 92.1	Past 91.2	Gyeongsangnam-do area 91.1

• 93.4%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can stay at home when having a fever and/or respiratory symptoms.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having three or more people who can help them if they are quarantined and/or hospitalized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	Region
Maximum value ▲	Men 43.4	19–29 years old 48.9	Professional, administrative, managerial job 46.0	₩ 4,000,000 and higher 43.9	College graduation and higher 42.9	Not applicable 40.1	Gangwon-do area 43.6
▼ Minimum value	Women 35.7	70 years old and over 27.1	Other 33.6	Less than ₩ 1,000,000 29.6	No formal education 23.3	Present 23.6	Gyeongsangbuk-do area 38.3

• 39.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ve three or more people who can help them if they are quarantined and/or hospital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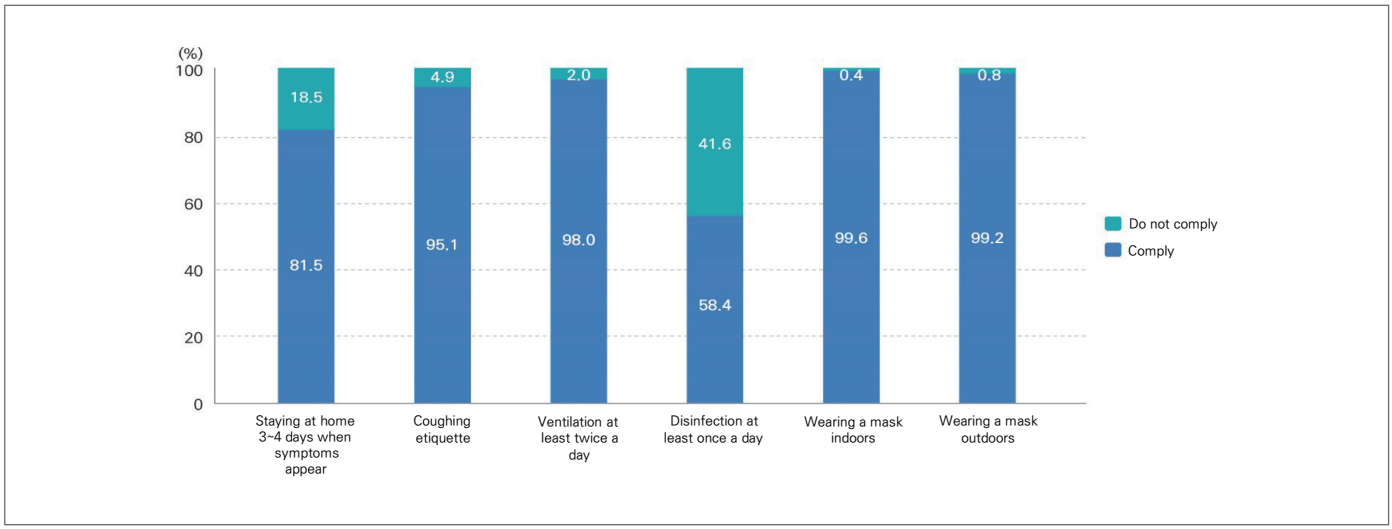


Figure 2. Compliance of the COVID-19 prevention guidelines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stayed at home when having fever or respiratory symptoms during the past week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	Region
Maximum value ▲	Women 86.0	70 years old and over 93.6	Other 94.3	Less than ₩ 1,000,000 93.2	No formal education 93.5	Present 93.9	Gangwon-do area 88.8
▼ Minimum value	Men 76.3	40–49 years old 72.4	Technical, simple, labor job 66.4	₩ 2,000,000 – ₩ 3,000,000 73.0	College graduation and higher 76.5	Past 37.6	Jeju-do area 57.6

• 81.5%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stayed at home when having fever or respiratory symptoms during the past week.

Table 4.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observed coughing etiquette during the past week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	Region
Maximum value ▲	Women 95.8	19~29 years old 96.8	Professional, administrative, managerial job 97.4	₩ 4,000,000 and higher 96.4	College graduation and higher 96.9	Not applicable 95.2	Capital area 96.8
▼ Minimum value	Men 94.4	70 years old and over 89.7	Farming or Fisheries 87.8	Less than ₩ 1,000,000 90.2	No formal education 85.4	Present 91.4	Jeju-do area 89.8

• 95.1%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observed coughing etiquette during the past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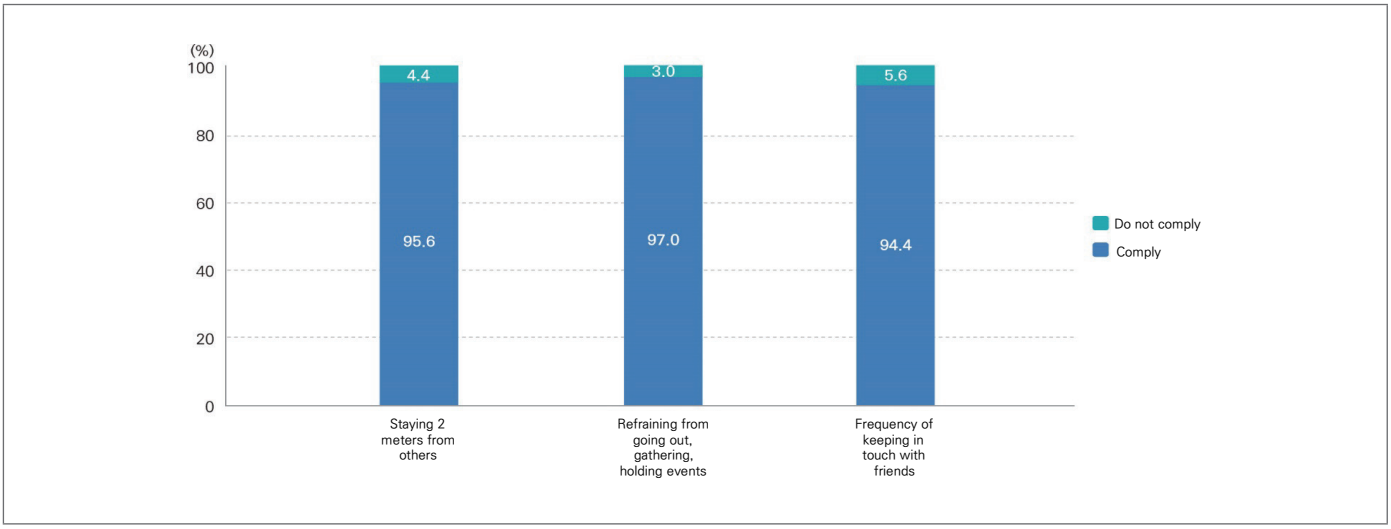


Figure 3. Compliance with social distan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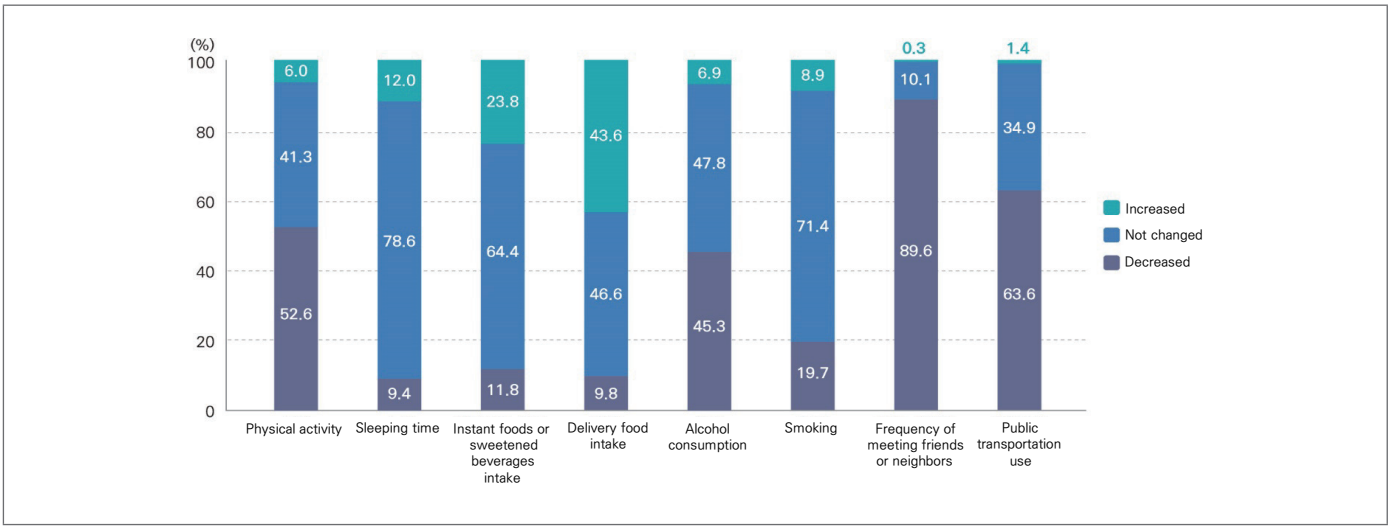


Figure 4. Lifestyle chan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able 5.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reporting decreased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Region
Maximum value ▲	Women 56.4	30~39 years old 63.8	Office job 58.0	₩ 4,000,000 and higher 55.4	College graduation and higher 58.1	Having 64.6	Capital area 55.7
▼ Minimum value	Men 48.8	70 years old and over 41.3	Farming or Fisheries 27.3	Less than ₩ 1,000,000 46.0	No formal education 39.6	Not having 52.3	Jeju-do area 40.6

• 52.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physical activity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able 6.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reporting increased sleeping ti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Region
Maximum value ▲	Women 12.2	19~29 years old 20.4	Other 13.7	₩ 3,000,000 – ₩ 4,000,000 12.6	High school graduation 14.3	Having 15.6	Capital area 13.0
▼ Minimum value	Men 11.7	70 years old and over 7.6	Farming or Fisheries 7.1	Less than ₩ 1,000,000 10.9	No formal education 6.5	Not having 11.9	Jeju-do area 9.4

• 12.0%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sleeping time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able 7.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reporting increased intake of instant food and sweetened bevera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Region
Maximum value ▲	Women 26.4	30~39 years old 33.1	Office job 27.8	₩ 4,000,000 and higher 25.9	College graduation and higher 28.4	Having 37.0	Capital area 26.1
▼ Minimum value	Men 21.5	70 years old and over 4.1	Farming or Fisheries 7.6	Less than ₩ 1,000,000 14.7	No formal education 3.0	Not having 23.5	Jeju-do area 17.8

• 23.8%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intake of instant food and sweetened beverages was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able 8.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reported an increased intake of delivery foo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Region
Maximum value ▲	Women 45.5	30~39 years old 56.8	Office job 52.7	₩ 4,000,000 and higher 48.0	College graduation and higher 51.4	Having 52.6	Capital area 47.2
▼ Minimum value	Men 41.7	70 years old and over 9.9	Farming or Fisheries 15.5	Less than ₩ 1,000,000 26.7	No formal education 7.4	Not having 43.3	Jeju-do area 29.5

• 43.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intake of delivery food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able 9.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reporting a decreased consumption of alcoho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Region
Maximum value ▲	Men 46.7	19~29 years old 55.1	Office job 51.5	₩ 4,000,000 and higher 46.7	College graduation and higher 46.7	Having 45.4	Honam area 47.9
▼ Minimum value	Women 43.2	40-49 years old 41.9	Farming or Fisheries 35.9	₩ 2,000,000 - ₩ 3,000,000 43.5	No formal education 39.7	Not having 41.8	Gyeongsangbuk-do area 40.0

• 45.3%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alcohol consumption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able 10.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reporting a decreased tobacco us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Region
Maximum value ▲	Women 22.8	70 years old and over 34.6	Other 26.4	₩ 2,000,000 – ₩ 3,000,000 25.3	Primary school graduation 26.2	Not having 19.8	Honam area 25.2
▼ Minimum value	Men 19.3	19–29 years old 14.4	Technical, simple, labor job 16.4	Less than ₩ 1,000,000 17.6	High school graduation 18.0	Having 17.4	Gyeongsangbuk-do area 12.5

• 19.7%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tobacco use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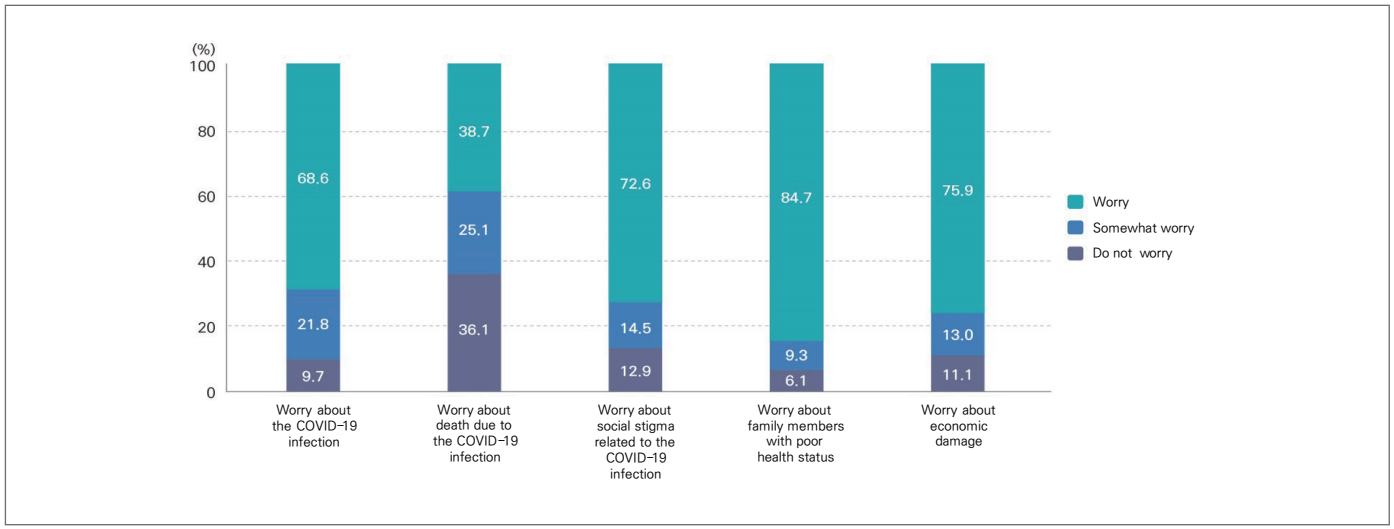


Figure 5. Worries due to the COVID-19

Table 1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worried about social stigma related to the COVID-19 infection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Wearing a mask outdoors	Region
Maximum value ▲	Women 76.7	70 years old and over 78.7	Farming or Fisheries 79.1	₩ 1,000,000 – ₩ 2,000,000 74.2	Primary school graduation 80.5	Comply 72.8	Honam area 78.0
▼ Minimum value	Men 68.4	19–29 years old 64.7	Technical, simple, labor job 71.4	₩ 3,000,000 – ₩ 4,000,000 72.1	High school graduation 70.2	Not comply 64.4	Jeju-do area 67.3

• 72.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orried about social stigma related to the COVID-19 infection.

Table 1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worried about the COVID-19 infection of family members with poor health status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Wearing a mask outdoors	Region
Maximum value ▲	Women 86.9	70 years old and over 88.2	Farming or Fisheries 88.0	₩ 1,000,000 – ₩ 2,000,000 86.2	Primary school graduation 89.1	Comply 84.8	Chungcheong-do area 86.7
▼ Minimum value	Men 82.4	19–29 years old 77.9	Professional, administrative, managerial job 83.6	₩ 4,000,000 and higher 83.9	High school graduation 83.3	Do not comply 77.1	Jeju-do area 77.8

• 84.7%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orried about the COVID-19 infection of family members with poor health status.

Table 1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worried about financial damag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Wearing a mask outdoors	Region
Maximum value ▲	Women 77.8	60–69 years old 81.1	Farming or Fisheries 82.9	₩ 1,000,000 – ₩ 2,000,000 81.8	Primary school graduation 84.5	Comply 76.1	Chungcheong-do area, Honam area 77.7
▼ Minimum value	Men 74.1	19–29 years old 69.4	Office job 67.1	₩ 4,000,000 and higher 71.8	College graduation and higher 70.1	Do not comply 67.6	Jeju-do area 69.0

• 75.9%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orried about financial damag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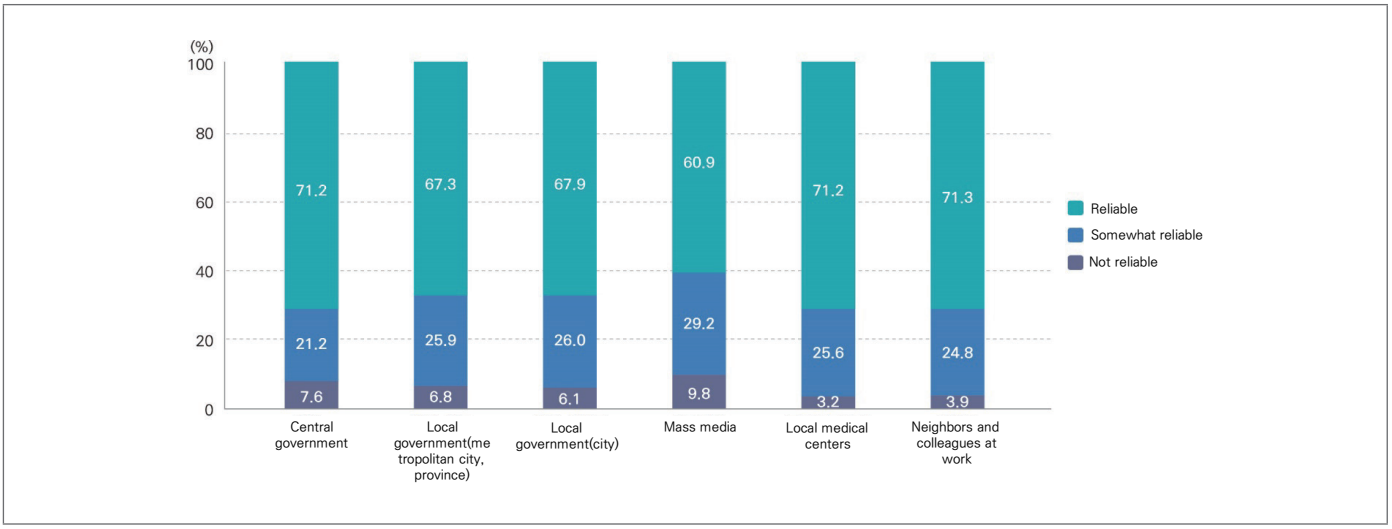


Figure 6.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s actions against the COVID-19

Table 14.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the government's (including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ctions against the COVID-19 are reliable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Region
Maximum value ▲	Women 71.9	70 years old and over 75.6	Farming or Fisheries 75.1	Less than ₩ 1,000,000 73.0	No formal education 76.8	Absence 71.4	Honam area 83.1
▼ Minimum value	Men 70.4	19–29 years old 64.8	Sales, service job 68.9	₩ 2,000,000 – ₩ 3,000,000 68.8	High school graduation 68.5	Presence 64.5	Gyungsangbuk-do area 61.2

• 71.2%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government's (including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ctions against the COVID-19 are reliable.

Table 15.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level) actions against the COVID-19 are reliable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Region
Maximum value ▲	Men 67.4	70 years old and over 75.4	Farming or Fisheries 77.2	Less than ₩ 1,000,000 72.0	No formal education 77.0	Absence 67.6	Honam area 79.7
▼ Minimum value	Women 67.3	19–29 years old 61.0	Sales, service job 64.8	₩ 3,000,000 – ₩ 4,000,000 65.4	High school graduation 65.3	Presence 59.8	Gyungsangbuk-do area 61.2

• 67.3%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level) actions against the COVID-19 are reliable.

Table 16.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city) actions against the COVID-19 are reliable

(Unit: %)

	Gender	Age	Occupation	Household income (monthly)	Education level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Region
Maximum value ▲	Men 68.0	70 years old and over 77.0	Farming or Fisheries 79.7	Less than ₩ 1,000,000 74.0	No formal education 78.7	Absence 68.2	Honam area 79.6
▼ Minimum value	Women 67.8	30–39 years old 62.3	Sales, service job 65.3	₩ 3,000,000 – ₩ 4,000,000 65.8	High school graduation 66.0	Presence 59.2	Gyungsangbuk-do area 63.3

• 67.9%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city level) actions against the COVID-19 are reliable.